2019 워크넷

취업 성공수기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9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대상

–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최우수상

–

“공허”의 가름은 “바램”을 비상 시킨다.

우수상

–

워크넷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입니다.

우수상

–

내가 기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답!

우수상

–

힘들어도 놓지 않았던 끈... 워크넷...

2019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

목차

장려상

–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는다.

장려상

–

나이 55세 퇴직은 “호상(好喪)” 이란다.

장려상

–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했다고나 할까요.

장려상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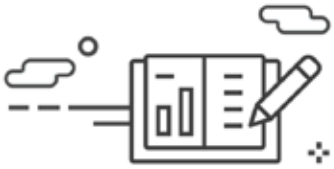
“엄마가 멋지게 입고 나가는거 멋있어 보여”

장려상

–

요즘 말로 인생 사이트가 되어주고 있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대상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기회’를 믿으며 시작한 워크넷 가입

7년 전, 50세를 훨씬 넘어섰으면서도 나는 그냥 막연히 생각했다. 내게도 은퇴라는 것이 올까? 대기업에서 높은 연봉을 받던 그때만 해도 나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과대평가하고 있었다. 스스로 창업을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SI사업부 일부 팀을 정리한다는 소문도 내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속한 팀 하나가 통째로 사라졌다. 사직을 권고받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정한 것은 바로‘워크넷’가입. 다른 어

떤 웹사이트보다도 믿음과 신뢰가 가는 동시에 무료 직업심리검사 등의 장점이 많은 것이 매력적이었다. 나는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준비하여 워크넷에 등록을 마치고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였다. 사직 후 내 전공 분야에서의 취업경쟁력을 높이려고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입학하여 미래진로를 탄탄하게 만들어가려 했다. 비록 시니어에 들어선 나이였지만, 기업들이 내 경력을 인정하고 연락을 바로 주리라 굳게 믿었고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였다.

'워크넷 가입'과 함께 필요한 '상담요청',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재평가'

워크넷을 이용하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중 '취업알선' 부탁부터 출발하였다. 그 후 워크넷으로부터 몇 곳의 입사 지원을 권유받았으나 선택을 망설이다 4개월이 훌쩍 넘어가면서 취업 시장이 내 생각과 같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취업이 힘들겠다고 여겨져 뒤늦게 워크넷의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에 취업을 위한 준비나 방법 그리고 나를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상담하기 시작하였고 친절한 답변으로 메일도 왔었다. 특히 '성공장년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해 주시는 분의 말씀은 내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고 또한 격려도 되었다. 그분 말씀 중 하나는 "선생님은 정말 경력이 좋으셔서 연봉이라든가 근무조건만 조금 낮추어서 제시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다. 맞다! 나를 채용해 줄 기업들이 원하는 조건을 먼저 알아내고, 그에 알맞은 나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나 자신의 재평가가 필요한 것이었다. 과거에 매달린 희망연봉과 직위는 잊기로 했다. 오로지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우선 필요한 것이었고 그 후에 내 성과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공무원 4급 서기관'에 합격한 워크넷 이용의 첫 성공 경험

워크넷 가입 후 6개월 가까이 이력서에서의 근무조건 등 내용을 다듬어 가던 중, 간부급 공무원 경력직에 응시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워크넷 프로그램' 참여자 한분의 권유가 있었다. '설마 나를 채용할 리가 없지.'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래도 혹시나 하는 생각에 워크넷 하단에 있는 '나라일터'를 통하여 해당 기관의 응모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마침 내게 맞는 4급 서기관 자리에 응시했는데 영광스럽게도 합격하여 대전 ○○○○○○에서 2년간 과장 직위의 공무원으로 재임할 수 있었다.

장년이 되면 하고 싶었던 '대학교수', 그리고 인재개발센터장

2년의 개방형 직위에서 물러난 후, 박사과정의 남은 1학기를 마저 수료하였고 또다시 워크넷 '키워드 검색'과정을 통하여 대학 교직원 자리에 취업을 시도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이력서 작성이라든가 면접전략 등의 도움으로 경남에 있는 대학의 부교수로 지원하여 합격하였으며 나의 전공 분야인 소프트웨어공학과 부교수로 3년간 역임하였다. 당시 인재개발센터장도 맡았었는데 역시 워크넷의 여러 가지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직업심리검사', '이력서 작성법', '면접전략' 등의 방법을 알려 주면서 취업을 도와주었다. 그 과정을 통하여 간호학과 여학생 제자 3명은 정말 취업이 힘들다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취업하여 지금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 후에도 자주 나를 찾아와 인사한다. 그중 한 여학생은 행복하게도 며느리가 될 예정이다. 워크넷이 만들어 준 신기하고도 뜻밖의 인연이 아닐 수 없다. 지방에서는 워크넷 웹사이트는 물론 여러 가지의 지원 서비스를 너무나 모르는 편이라 다양한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은가 여겨진다.

교수 퇴임 후에도 바로 워크넷에 올라있는 내 경력 분야의 중소기업 채용공고를 검색하였고 경남에 있는 IT 기업에 연구소장으로 초빙받아 단기로 일하였으며, 1년 동안의 연구경력을 내 경력에 추가했다. 이제 내 나이 62세.

'워크넷의 취업알선 프로그램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

지방에서의 7년 원룸 생활을 끝내고 8월 19일, 서울 집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이제는 정말 취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도 다시 도전한다는 각오로 고령의 부담감을 가지고 워크넷 이력서를 다듬고 자기소개서를 재작성하여 올려놓자마자 전화 한 통을 받게 된다. "워크넷에서 선생님의 이력 사항을 보고 면접 요청 차 전화를 드렸습니다." 순간 나는 너무 반가워서 잠시 말을 잊었었다. "아! 네 언제쯤 찾아뵐까요?"라는 내 물음에 그분은 다음 주 바로 만나고 싶다고 했다. 다음 날 나는 세 단계 면접 과정을 거쳐 중견기업인 이 회사에 입사하였고 현재 서울의 가산동에있는 본사에서 재직 중이다. 8월 1일 수정한 워크넷 이력서에 의한 취업 일자는 2주 후인 8월 19일이었으니까 10월 27일 기준 2달이 넘어간다. 고맙게도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다.

이미 직장인 된 아들, 딸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출근하고 또 저녁 퇴근 후에는 식구 넷이 다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운다. 재미있게도 딸 역시 대학 졸업 시 워크넷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인턴도 하고 취업도 하였다. 딸도 처음에는 9개월 가까이 대기업에만 입사 지원을 하다가 워크넷 상담과정을 통하여 본인의 역량을 재평가한 후 중견기업에 입사 지원 두 번째 되는 곳에 취업하였다. 워크넷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다.

'워크넷은 이용자 노력에 따라 그 정보력이 발휘된다!'

워크넷 가입 후 이용 시 내가 가장 먼저 하였던 일은 '자기이해 및 직업탐색' 가이드북을 다운로드 받고 스스로 심리검사를 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의외의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연예인이 어울린다는 결과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았으나 그 이유를 보고 내가 어떻게 취업활동을 하여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다. 워크넷에서는 기업의 정보를 미리 잘 알려주기 때문에 면접 시 유리하게 답변할 수 있었다. 물론 워크넷이 취업포털로서 강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나는 가입한 지 7년이 넘었고 가입 후 네 번의 취업 중 단 한 번도 워크넷을 통하지 않은 적이 없고 실패한 적도 없다. 초기와는 달리 정말 워크넷은 감탄스러울 만큼 발전해왔다. 취업을 위해 내가 선택한 전략은, 워크넷이 제공하는 정보의 철저한 습득, 그리고 취업 프로그램의 적극 참여였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워크넷에는 복지정책 알림 기능이나 취업 지원 무료 프로그램들까지 꽤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 모바일 워크넷의 경우, 그 이용방법이 너무나 간편하고 보기 쉬워서 가끔 내 직업적성을 재검사하는 등 재미있기까지 하다. 지금은 조금 미흡하나 시범 운영 중인 챗봇도 더 지능화된다면 개인별 맞춤 지원이 훨씬 정교해지지 않을까? 워크넷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IT 관련 직종 채용검색이다.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면서 IT 유관 직업이 다양해지는 만큼 검색과정에서 선택 분야가 폭넓게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워크넷은 그냥 방문하고 둘러보면 되는 단순한 정보제공 웹사이트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철저하게 그 이용방법을 알아내고, 해당 프로그램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며 내게 맞는 진로설계와 취업전략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포털이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워크넷에 깊이 감사한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최우수상

“공허”의 가름은
“바램”을 비상 시킨다.

가늘게 떠지는 실눈 사이로 어둑해진 초저녁의 기운이 나를 일으켜 세우고 깊게 드리운 커튼 사이사이를 물들이듯 거뭇거뭇한 공기의 흐름은 이내 나만의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게 한다. 나는 밤과 낮이 뒤바뀐 삶을 이어가고 있으며, 그렇게 뒤바뀐 시간의 흐름에 편승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자 어느 노모의 아들, 그리고 어느새 훌쩍 커버린 외동딸아이의 아버지란 이름이 무척 잘 어울릴 법한 한 중년의 사내다.
이불속 경련적인 기지개를 켜며 다소 가벼워진 듯 한 귓가 사이로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더욱 짙어진 공기의 매질을 통해 울려져온다.

“애비야 얼른 일어나 씻고 밥 먹어라!”
“네...”
나는 다소 기계적인 단발의 대답 신호와 함께 부스스한 눈을 비벼가며 단숨에 몇 리터 이상의 공기를 들이마셔 내 뱉을 것 같은 기세의 하품은 나를 휘적휘적 화장실로 자연스레 인도한다.

나는 요즘 들어 종종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있는 시간이 길어져만 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거무튀튀한 얼굴에 촘촘히 박힌 수염위로 면도기를 들이댈라치면 문득문득 무념무상의 한 사내가 나를 향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의 따가움이 자주 전해져 오기 때문이다. 그 사내의 자글자글한 눈가 잔주름은 이젠 그가 제법 세월의 풍파에 농익었음을 말해주는 듯하였고, 한층 더 깊어진 눈망울은 기억의 한 조각 속에만 존재하는 빛 바랜 사진속의 아버지란 이름의 그분과 오버랩 되어 이내 엷은 쓴웃음을 짓게 하곤 한다. 그러나 그런 시선의 붙들림도 잠시 “아! 나도 어느덧 지천명을 넘어 섰구나” 하는 공허함의 메아리와 함께 언제 그랬냐는 듯 현실로의 초대는 나를 일상의 삶 위에 다시 세워 놓곤 한다.

“나”라는 형상을 가진 그 거울 속 중년의 사내는 무척이나 다양한 분야의 관심 속에 특수용접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건축도장기능사,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요트선장 등 꽤나 특이하고 이채로운 사회적 명함들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재미있는 점 하나는 매번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얻은 그 하나하나의 명함이 사회적 직함으로서 현재의 삶에 온전히 투영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Irony)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왜 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며 잠시 망각의 강을 거슬러 과거 기억의 뭍으로 종종 올라서 볼 때도 있었다.

내 인생의 항해 기상 중 가장 아름답고 청명하게 빛났던 이삼십 대의 날씨는, 경찰공무원으로 공채 입직 후 주로 강력계 형사의 소임을 다하였고, 밤낮이 있을 수 없는 치안의 사선 속에 무한 발전의 속력이 붙은 “범죄의 진화”란 강물은 나를 수많은 사건현장 속으로 끌어들이곤 하였다. 당시의 척박한 근무 환경에도 나름 “거리의 판사이며, 정의를 지향한다”라는 직업정신은 현실과의 타협을 불허했던 젊은 나의 많은 것을 바꿔 놓기에 충분하였고, 천직이라는 직업적 자긍심까지 가져다주었다. 그랬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까지도 남다른 자부심과 함께 마음 속 한 구석의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걸 보면 당시 얼마만큼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고 그 일에 미쳐 최선을 다했었는지 나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관운이 길지 않았던 탓이었을까? 뜻하지 않은 직무상의 문제 발생으로 인해 당시

초급간부였던 나는 책임성 면직과 함께 평생직장이란 직업개념 논리를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변곡점에 서고야 말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가정사 또한 선천적 장애를 안고 태어난 딸아이를 홀로 키워야 할 홀아비의 처지에 놓이게 되다보니 앞으로 닥칠 내 인생의 1막이 그다지 평탄하지 않으리라는 것쯤은 불을 보듯 뻔했던 것 같다. 더욱이 철썩 같이 믿었던 지인의 금전적 배신으로 인해 퇴직금 한 푼 손에 쥐지 못한 채 이 넓은 세상에 별안간 내 팽개쳐져 다시 홀로서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현실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고 차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 시절, 쇠도 씹어 먹을 것 같았던 젊음이 있었기에 안정적인 여타의 직장생활 보다는 홀로 자생하는 잡초의 모험을 택하였고 시련의 눈물보다는 “다시” 라는 단어를 곱씹으며 매순간 치열한 삶을 이어갔었다.

그 후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면서 냉동, 냉장창고 개발 사업이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경기도 전 역을 내 집 앞마당 쓸고 다니듯 매일같이 승용차의 킬로수를 갱신해 가며 머릿속의 뇌를 통째로 내 놓아 얻었던 결과는 남들보다 많이 벌어 봤고, 많이 벌었던 것들을 남들 보다는 조금 더 잃어 봤다는 궁극의 경험치 외엔 소득이 없었다. 결국 사람을 너무 믿었던 내 자신 행태의 끝맺음은 “손해난 장사”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허무하게 허비한 샘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 보면 난 그 “다시”라는 단어 속에 감춰진 시행착오의 대가와 들쑥날쑥한 가정 살림 형편, 그리고 딸아이의 성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먼 미래의 행복이란 이름 아래 너무 쉽게 간과하였던 엄청난 실수를 범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나이에 또 다시 값비싼 인생의 수업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래서 일까? 묘하게도 사십대의 즐거움이나 행복감 같은 추억은 아직도 기억 한편에서 조차 존재하질 않는다. 그리고 당시의 막막한 현실에 가끔은 서글퍼지고 우울해지기도 하였는데 그것들은 이내 두려움으로 변하여 성큼 내 앞에 다가서기도 하였다. 어쩌면 그런 이유의 잠재적 심리가 맘속 깊은 곳에 자리 잡혀 있어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 시기쯤부터 사회적 명함이라 할 수 있는 각종 국가자격증 취득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 같다. 마치 그것이 미래의 안정적인 삶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보험인 냥...

그러나 그 와중에도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할 수 있었던 부분은 마치 롤러코스터와도 같았던 내 인생

의 경험치는 그 당시 현실의 중요한 사실 하나쯤은 일찍이 깨우쳐 주었다. 애써 취득한 각종 국가자격증은 기존의 생업위에 연계되어 빛을 발하지 않는 이상 당장의 안정을 필요로 한 내 현실의 가정사에는 그렇게 많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을...

그리곤 이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또 다른 물음의 조약돌을 만지작거리며 힘들게 취득하였으나 당장 활용 할 수 없음에 아쉬움의 입맛만 다셔야했던 여러 분야의 국가자격증의 활용방법! 그리고 당장 삶을 영위 할 수 있는 직장! 난 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위해 장고의 물수제비를 뜨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내 던져야 할 분야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고, 그중 가장 효율적이 방법은 구인, 구직포털 사이트의 적절한 이용이란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 까지만 해도 아무리 작은 규모의 사업이라도 나만의 개인적인 일을 고집해 왔던 터라 온라인 상 구인, 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포털사이트가 그토록 크고 전문적으로 존재 할 것이라고는 솔직히 생각지 못했었다. 아니 그간 관심 밖에 일이었으니 충분히 그랬으리라. 그래도 막상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상위 포털사이트 몇 군데를 접속하여 검색을 시작해보긴 하였는데 그러한 작업들은 생각보다 여간 짜증나고 까다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음을 느끼게 되었다. 첫째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구직 정보의 전체 열람을 차단해 놓기 일쑤였고, 둘째는 구체적 업무 내용과 급여부분, 그리고 해당 회사의 제반 정보 등 구직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 수시로 그 답답함이 밀려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간 걸었던 기대치의 크기만큼 그에 따른 실망감도 점점 커갈 즈음, 그래도 궁하면 평소 안보이던 것도 보이는 것인지 집에서 가까운 곳에 정부의 한 기관인 "평택 노동고용센터"란 곳이 있음을 우연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토록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못내 헛웃음까지 새어 나왔다.

당시 단 걸음에 그곳을 방문하여 이런저런 궁금한 점과 구직에 대한 질문 등 여러 가지의 많은 것을 단번에 해결 해 보고 싶었던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몸은 그와 반대로 잘 움직여 주질 않았다. 아마도 처음 접해본 일인데다 나이 또한 적지 않은 터라 실패 시 다가올 창피함과 두려움에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 가며 망설임의 나날이 이어져 갔고 그렇게 무의미한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스스로도 답답한 놈이라는 생각까지 들 즈음 별안간 나의 등짝을 세차게 후려치는 엄니의 매운 손길과 함께 "중요한 고민일수록 짧고 굵게 하는 것이다 잉" 하는 호통에 "그래 밑져야 본전이겠지?" 란 생각이 불현 듯 밀려왔다. 그리고 이내 가깝고도 멀기만 하였던 그 고용센터를 막상 방문을 하여 보니 우선 생각보다 큰 규모와 세분화된 부서에 놀라움이 앞섰다.

또한 국적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신과 맞는 일과 직장, 그리고 갖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분주히 오가며 상담을 받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연령층 및 많은 사람들의 북적거림에 잠시 넋 놓고 보고 있자니 “나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이렇게도 많았고 참 열심히들 살려고 애쓰는 구나” 하는 생각에 그간 변변치 못한 나의 짧은 고민은 이내 부끄러움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이유 없는 작은 위안과 함께 또 다른 용기를 가져다주기도 하였다.

대기 번호표를 뽑고 얼마간의 시간의 흘렀을까? 마침내 고대하던 직업 상담관과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보니 그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책없이 풀어 놓게 되었는데 그분 또한 일면식 없는 나의 이야기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며 들음의 시간을 같이 흘려보내 주었다. 그리고 이내 그것들은 소소한 따스함으로 변하여 나의 마음속을 향해 살며시 전해져 옴을 느낄 수 있었고, 그것들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색깔의 울림이었던 것 같다. 그분들은 통상의 업무상 상담 과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나에겐 그러한 공감의 형성은 절박한 입장에 선 한 가정의 가장이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다시”라는 단어를 새삼 떠올려 보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곳 상담관을 통해 워크넷이란 구인, 구직 전용 정부 포털사이트의 이용 설명과 함께 “내일배움카드”란 것도 함께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었고, 그날부터 워크넷을 통한 본격적인 구직 작업에 매진 할 수 있게 되었다. 나름 구직 활동도 같은 곳을 목표로 하는 다른 이와 피치 못할 경쟁을 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이기에 기업의 면접 담당자 입장에 서서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것이 짧은 시간 내 합격률을 높이는 최선의 방법이란 생각이 들어 우선 잘 나온 사진을 준비해 워크넷에서 요구하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충실히 작성하여 등록하였고, 구직을 원하는 분야의 모바일 매칭 서비스를 신청해 수시로 구인에 대한 정보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내 인생에 있어 어쩌면 마지막 직장이 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시작하였던 탓에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관찰하였으며, 어떤 부분은 노동고용센터의 담당관 또는 구인 기업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해 가며 궁금한 점들을 해소해 나가는 작업을 반복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직 작업의 과정이 원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선 워크넷이란 포털사이트의 운영 주체가 정부라는 점에서 그 공신력에 대한 믿음이 컸고, 궁금해 하는 정보에 대한 검색 방법 또한 구체적 지역을 특정 할 수 있다는 점과 직업군을 분야별로 디테일(Detail)하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색 조건 등의 편리성을 복합적으로 이용해 보니 내가 원하는 기업의 구체적 정보 및 구인 등에 대한 정보만을 족집게처럼 PC 창에 올릴 수 있어 원하는 구인, 구직 정보를 짧은 시간 내 집중적으로 탐독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었다. 이는 전국 수만 개의 기업체 구인 정보를 일일이 다 훑어보지 않아도 된다는 시간적 절약과 함께 입사를 원하는 업체에 대한 재무구조 등 전반적인 정보를 취합, 정리 할 수 있었으므로 나의 조건과 맞는 범위내의 구직대상 기업을 추출할 수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하였고 이런 부분들이 꽤나 좋은 장점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물론 여타 포털업체의 구인, 구직에 대한 검색 서비스 또한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그럼에도 PC 상단 즐겨찾기에 유독 워크넷 만을 올려 두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검색 시, 창에 올라온 해당 정보의 구성 및 배열이 일단 시각적으로 한눈에 들어온다는데 있었다.

달리 말해 한눈에 보기 쉽다는 뜻이다. 구인 기업을 클릭하지 않아도 업체 명, 업체 위치, 해당 근무내용과 시간 그리고 해당 임금등의 정보가 정해진 레이아웃(Layout)에 일목요연하게 펼쳐지게 되어있는 구조인데 이것은 당시 하루하루가 아쉬웠던 구직 활동의 검색 피로도와 함께 검색, 열람 시간을 최대한 줄여 줄 수 있었던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다.

그리고 실시간 올라오는 구인 정보나 지정해 둔 직업군의 매칭 서비스 정보는 내가 입사지원을 할 만한 업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그만큼 불필요한 검색시간을 줄여 즉시 즉시 원하는 기업을 찾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던 것 같다. 대부분의 구인과 구직은 상호 필요성에 따라 실시간 정보를 올리기 마련인데 이는 대다수가 평균 2~3일 이내에 구인, 구직여부가 결정된다는 뜻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실시간 제공되는 생생한 구인, 구직 정보가 가장 중요 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고, 이미 기재된 구인 모집기간의 마감 시한을 기준으로 한 타 포털사이트의 연속적인 매칭서비스는 크나큰 의미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나는 이러한 조건들을 토대로 입사지원이 가능할만한 기업 정보의 수집과 워크넷의 생 정보들을 충분히 활용한 결과, 제법 큰 한 페인트 유통 및 판매 기업에 입사지원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3일이 채 되지 않은 기간에 면접 및 합격 통보를 받아 불혹 말년의 적지 않은 나이에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었다. 이렇듯 남들보다는 짧은 기간에 취업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아마도 워크넷 이용에 대한 장점을 나름 충분히 파악하고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 주요하지 않았을까 싶다.

이와 더불어 유쾌한 에피소드(Episode) 한 가지를 더 풀어 놔 볼까 한다. 그렇게 입사 후 약 3개월여에 거쳐 어느 정도 회사의 업무 파악 및 적응기가 끝나갈 무렵 영업에 대한 압박감 및 일에 대한 승부욕이 슬금슬금 괴롭히기 시작 할 때가 있었었다. 공업용 페인팅을 하는 공장 및 기업들은 작업 환경적 측면상 외부에서 그 존재 유무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만큼 방문해야 할 영업대상의 선별이 어렵다는 이야기다. 당시 무작정 발품만을 파는 영업기획으로는 원하는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고민 끝에 때마침 떠오른 아이디어가 "워크넷" 이었다.

짧은 취업 준비 기간 중 워크넷의 정보 구성과 활용에 익숙해져 있던 터라 이를 영업 분야에 접목시켜 보자는 생각이었다. 그날부터 퇴근 후 워크넷을 검색해 가며 도장공을 구인하는 업체나 공업용 페인팅을 할 만한 업체를 선별 한 뒤, 다음 날 부터 일일이 방문 해 가며 영업을 시작해봤다. 결과는 예상 보다 많은 실적을 나에게 가져다주었으며, 큰 유통 기업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타 경쟁 업체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한 장거리의 납품 대상 업체를 새로 발굴함으로서 좋은 도료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할 수 있어 수급업체나 공급업체인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아 입사한지 12개월 만에 전폭적인 급여의 인상과 함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었다. 아마도 그러했던 부분은 나라는 사람이 특출 나서가 아니라 그래도 나름 내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갖고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었다는 부분이 사장님 눈에는 보기 좋으셨던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도 그렇듯 시간이 흘러 미래의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나의 과거 중 한때를 돌이켜보아 "그래... 그래도 그때 그 일은 참 열심히 잘했던 것 같아! 라는 여운을 남길수 있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은 아직도 늘 변함없이 가지고 사는 나만의 인생철학 같은 것이기도 하다.

그렇게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은 훌쩍 흘러갔고 그곳에서 나의 흔적을 서서히 지워야 할 시기가 다가옴을 느낄 즈음 사장님의 온갖 만류에도 어렵사리 이직을 결심하게 되었던 나는 또 다시 워크넷 앞에 앉게 되었다.

그래도 언제나 변함없는 벗처럼 워크넷이란 친구는 그 자리에서 그간 좀 더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한 새로운 모습의 취업 정보를 내게 전달해 주었고, 나는 그러한 정보를 재해석 해가며 내가 원하는 갈증을 아낌없이 해소함에 이내 관심이 가는 한 회사를 새로이 찾아 다시 입사지원을 할 수 있었다.

이번엔 기존에 신청해 두었던 모바일 매칭서비스가 제 몫을 톡톡히 해 주었다.

문뜩 휴대폰을 통해 울리는 구인기업 매칭 문자를 보고 즉시 워크넷 앞에 앉아 해당 상세 정보를 재차 검색하여 확인해 보았다.
“회사명 주식회사 ○○○○○○ 담당업무 제약회사 야간 소독업무라...”
“음! 야간 소독업무가 과연 어떤 종류의 일 일까?”
우선 컨슈머 리포트와 유사한 기능인 기업리뷰를 살펴보았다. 파견직 기업의 특징인 많은 사원의 수와 함께 기업평가 부분은 “법은 잘 준수하나 최저임금 수준”이란 글이 눈에 들어왔다. 그러나 야간 고정근무 탓인지 제시된 급여는 생각보다 무난한 수준이었고, 3일 근무에 1일 휴무라는 제안이 유독 업무에 대한 궁금증 깊이를 더하게 했다. 아울러 면접 장소에 대한 부분 또한 나의 관심도를 더욱 끌어올리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운이 좋았던 탓이었을까?
구인 마감일과 같이하여 서류 심사에 합격하였으므로 지정된 일시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평택 노동고용센터 담당관의 문자 메세지가 도착 하였다. 면접 장소는 예고했던 바와 같이 평택노동고용센터 2층 상설면접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면접 당일!
20분 정도 일찍 도착한 나는 사뭇 긴장된 마음을 추스르고 평택 고용노동센터 직원의 안내에 따라 면접 대기실로 이동을 하였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공간과 편안함을 더 하기 위한 커튼가림 옆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들이 나를 맞이하여 주었고, 나와 같은 목적의 면접을 보기위해 대기중인 여러 명의 사람들이 저마다 옷매무새를 고쳐가며 직원이 건넨 한 잔의 커피에 잠시 긴장을 풀어보려 애쓰는 모습들은 이내 안쓰러움으로 다가와 나의 시야에 녹아들었다. 그리고 간단한 회사의 소개와 면접진행 절차의 순서를 전하며 합격 기원의 당부를 잊지 않고 미소 짓는 직원의 뒷모습에 그나마 다들 약간의 안면 근육은 부드러워진 표정들이다.

구직 시 대부분 입사를 원하는 기업 방문을 통한 면접이 통상의 그것이겠으나 이곳에서의 면접장소 제공과 그 방법은 입사 기업의 면접담당자와 응시자 간 제3의 중간 역할을 해 주는 그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 모든 응시자들에게는 다소 여유를 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는 기업 면접담당자의

일방적 질문과 응시자는 그에 상응한 대답만을 해야 하는 그간의 다소 보수적인 구조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 "나"라는 사람에 대한 어필(Appeal)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소통의 공간이 되기도 하였던 것 같다.

당시 기업의 면접담당자로 나를 기다리시던 편안한 인상의 장 소장님과의 첫 대면 후 약 20여분에 거친 면접을 무사히 마쳤고, 그 후 시간은 흐르고 흘러 어느덧 입사 6개월째를 앞둔 오늘 저녁의 출근길! 잔뜩 부풀어 오른 면도거품을 깎아 내리는 나의 손놀림은 그 가볍고도 날렵함에 지금 현실의 시간이 어떤 형태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작게나마 대변하여 주는듯하고, "아마 내일 퇴근길에도 어김없이 만추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동녘 하늘의 샛별을 여유롭게 볼 수 있겠지?" 라는 다소 희망 섞인 설렘을 품어 느껴보기도 한다.

그리고 매일 밤을 하얗게 보내야 하는 야간 소독 작업은 그 특수성과 세밀함, 더욱이 밤과 낮이 바뀌어 생활해야 한다는 부분에 다소 그 역할의 버거움이 전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직업군에 속함을 내심 만족스러워 하며, 그와 어우러진 많은 동료들, 그리고 상설면접장에서 긴장된 얼굴로 첫 만남을 가졌던 몇몇의 늦깍이 입사 동기들과 어느새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그들의 맛깔난 인생 무용담과 함께 "바램"이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을 조심스레 비상시켜 보고도 싶다.

우리네 삶은 누구나 그렇듯 잔잔한 바다 위의 평화로운 항해 보다는 수시로 다가서는 폭풍우와 거친 파도 속에서 청명한 하늘을 기다리는 날이 더 많을 것이다. 그래도 저마다 삶을 이어가야 할 목적과 책임이 존재하기에 그 거친 파도의 때림을 견디고 견뎌가며 묵묵히 항진하는 것 일 것이다. 그렇게 쉼 없이 가다보면 어느새 더욱더 단단하고 간절해진 나만의 솟대를 통해 힘든 현실의 "공허"를 가르고 "바램"이란 희망의 이야기를 조금씩 이라도 비상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는 오늘 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내일을 지향하며 살아가야하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기에...

끝.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

워크넷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올 해 마흔 넷의 두 남매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디자이너 김○○ 대리입니다.

우연히 회사 메일로 도착한 공모전을 확인 후 반가운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강소 중소기업인 호텔MRO 업체 디자이너로 이직하여 근무한지 4개월 차 됩니다. 비록 이직을 하고 처음 시작하는 단계의 업체여서 해야 할 일이 여러 방면으로 많습니다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처음부터 이직이 쉽고 근무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다시 취직을 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친정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셨고 시댁 어른들은 사정상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셨습니다. 처음엔 원망스럽고 두 아이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종일반을 맡기면서 일을 할 생각을 하니 앞이 깜깜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경력 단절 기간이 4년 된 상황에서 이미 사회는 제가 근무했을 때 보다 빠르게 변해있었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습니다.

좌절하고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때, 선배가 거주 지역 고용 지원 센타를 알려주었고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공부한 전공분야와 기존에 근무했던 업종을 확인 해 드렸습니다.
또한 두 자녀가 어렸기 때문에 취업 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제도를 용인시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여 조금이나마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으며 취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의 전공 분야에 맞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근무를 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더 느끼고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더 공부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양육 부담도 조금씩 해결이 되고 전일 근무를 하면서 회사에서도 배려를 해주어 조금 일찍 가는 날도 생겼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10년차 워킹 맘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중학생과 초등 고학년이 되었고 일하는 엄마를 둔 덕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졌고 집안일을 도우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전 직장의 이직 사유로는 급여, 근무조건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상급자의 폭언과 업무 태움 현상으로 인해 1년6개월여 동안 힘든 점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이직하는데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전공과 관련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직을 하면서 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공부할까 치열하게 고민 했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보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재직자 과정 중에 컴퓨터 그래픽 컨텐츠 과정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공부를 하고 10년 후에 공부하는 것이라 프로그램도 생소하고 작업속도도 빨라 나이 마흔의 엄마는 따라가기가 바빴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것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훈련덕분에 주기한도가 300만원이 부여되고 연간 20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내일 배움제 카드가 발급되었고, 스마트문화앱콘텐츠제작 향상(일러스트) / 광고 컨텐츠 제작 향상(인디자인) / 전산회계1급(FAT1급) 자격증취득 과정을 들으면서 저의 디자인 실력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의 영역을 넓혔습니다. 비록 재직자 과정은 근무가 끝난 후 정해진 날짜에 정확한 출석률로 공부를 해야만 정상수료가 됩니다. 기존 업무처리에도 속도가 나고 회사를 마치고 공부하러 가는 길은 힘들지만, 보람이 가득하고 하루를 꼼꼼하게 잘 사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부했던 영역의 능력을 살려 새로운 직장에 어엿한 디자이너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등록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치를 기재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출했습니다. 직업상담사님도 적극적으로 저의 이력을 열람하시고 구직이 등록됨과 동시에 구인을 하는 업체와 상호연계 및 희망연봉도 체크해 주시며 알선을 해주셨습니다. 개인정보 동의를 통해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주시고 면접일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회사의 분위기와 회사가 하는 일 그리고 면접을 잘 보았는지에 대한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습니다. 저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외롭지 않게 구직활동을 하고 계속 관심을 써주고 취업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든든하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 입사하게 되었고, 현재 편집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디자인 이라는 일은 회사마다 추구하는 컨셉과 방향이 있기에 제가 맞추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방향을 잘못 맞추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수록 좌절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업무파악을 하고 적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직을 하면서 제일 먼저 두었던 것은, 정확한 업무 분장이었습니다. 디자인, 일러스트를 다루는 분야는 어느 회사이든지 독보적이고 개성 있는 업무 부서이기에 일의 효율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학령기에 접어드니, 부부가 같이 열심히 일해야 아이들 뒷바라지며,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하며 회사 일까지 병행하는 것은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회의하며 엄마의 상황을 이야기 해주며 서로 성장하는 가족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훈련덕분에 경쟁력을 강화시켰고 업무와 관련한 훈련을 받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보다 많아졌음을 체감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업무능력 향상을 통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삶도 더 활기차 졌구요

앞으로는 저의 꿈은 사회복지사입니다. 다행히 향후 공부하고자 하는 내용도 직업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의 행보가 궁금해 집니다. 그 과정 속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와 워크넷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의 업무에 충실할 것이며, 보다 멋진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다짐이자 약속입니다.

수기를 통해 저의 일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고 그간의 업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취업을 고민중 이거나,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저의 글이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우수상

–

내가 기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답!

연일 청년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토로하는 매스컴의 기사나 주변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고 있다. 나 역시 지방 4년제 공대를 졸업하고 학교에서 연결해 준 기업인턴 3개월을 거치며 직장인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자 하였다.

늘 고민이었던 것은 나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져야 하는지 아니면 좋아 하는 일을 직업으로 가져야 하는지 의문이었다. 고교시절 과탐영역과 수리영역의 성적이 그나마 나아서 이과를 선택하였고 이 후 공대로 진학해서 이공계에 적합한 일자리를 선택하는 것은 마치 정해진 인생지도 보듯 만들

어진 진로선택의 과정이었다.

인턴기간 동안 직속상사를 따라다니며 다양한 기업을 방문하여 회사의 주력품을 홍보하고 마케팅 하는 업무를 하다 보니 과연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퇴사 시 겪어야 할 주변의 걱정과 숙제로 다가올 전쟁과 같은 청년취업난의 대열에 나도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나를 다그쳐 왔고 이 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과감히 떠나 보내버렸다. 뭔가 아쉬워하는 부모님께는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도대체 나는 뭘 잘 하는지 아니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고 싶었다. 나 자신의 특성과 하고자 하는 직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나의 진로를 결정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 고민을 끌어안고 나는 한달 간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서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살면서 내가 기쁘게 만족하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겠다는 답!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했고 나의 능력과 적성. 성격특성. 가치관에 맞는 진로를 찾아야 했다. 우연한 기회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이라는 취업사이트 안에서 직업선호도검사 S형을 해보고 그 결과 나 자신이 가진 가치관. 흥미. 즐겨 완수하는 역할. 어떤 사람을 피한다든가 대인관계에서 내가 주로 하는 행동양식 등을 마치 그림책을 보듯 결과지로 출력해 보게 되었다.

사실 답답한 마음에 타로점도 보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추상적인 과정보다 신뢰도 있는 검사를 통해 나 자신의 성격유형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음에 놀라울 따름이었다. 나 자신이 늘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아 과학자나 연구원 쪽이 당연히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검사결과 관습(C)형인 수립되어 있는 시스템에 적응하여 규칙에 맞게 성실하고 분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여, 서류 작성 및 기록 등과 같은 사무적인 일에 능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일이다. 그렇다면 사무원이 되려면 어떤 스펙을 쌓아야 하는지 워크넷에 게재 되어있는 다양한 사무원 구인공고를 살펴보며 컴퓨터 활용능력과 더불어 행정 관련 자격을 갖춘다면 서류전형은 어느 정도 PASS 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은 거주지 고용센터 상담 후 계좌카드를 발급 받으면 국비지원을 통한 교육도 가능해 현재 수입이 없어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불행한 일을 하지 않아도 국비로 학원 수강 후 자격 취득해 취업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

다. 이 모든 정보를 워크넷을 통해 얻을 수 있었고 또래 친구들이 맹신하는 어떤 민간취업사이트보다 우수함을 알게 되었다.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나는 호주로 워홀과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길을 혼자 씩씩하게 다녀왔고 이 후 YOLO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며 내 삶이 생계에만 집중해 직장-집을 오고 가는 순환적인 삶이 된다면 아무리 적성에 맞아도 직장생활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고민 끝에 부모님을 설득하여 낯설기도 하지만 늘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제주도로 혼자 독립할 수 있었고 낯선 곳에서 정착하기 위해 직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처음 이주 후 PC도 없고 이래저래 구직활동 하기에 불편하기도 했지만 워크넷 모바일서비스 앱을 통해 들어가면 미리 저장해 둔 구직정보에 따라 나에게 적합한 추천 매칭서비스가 떠서 제주도에 다양한 구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었고 나와 적합한 사무직 일자리를 똑똑하게도 추천해 주어 놓치는 것 없이 비교하며 찾을 수 있었다. 이력서를 별도 출력하여 방문하는 불편함 없이 워크넷에 저장해 둔 이력서로 바로 지원하면 인사 담당자에게 누락 없이 전달되어 나에게는 여러모로 편리하지 않을 수 없는 고마운 조력자였다.

며칠 후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담당자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보게 되었으며 생각지도 못했던 감정평가라는 업종의 시간제 사무원으로 취업 할 수 있게 되었다. 과연 내가 1도 모르는 이 직무를 잘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앞섰다. 부동산 주로 대지나 건물, 임야 등을 컨설티로 부터 의뢰 받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자료를 통해 감정가를 유추 해 내는 일이었다. 원래 나의 업무는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잡다한 사무를 보조하는 기본적인 업무지원을 하고자 채용되었으나 한달 후 체계적인 자료정리와 실수 없는 꼼꼼한 업무 스타일을 지켜보시고 대표님께서 평가사 보조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급여나 복지수준도 대기업 못지않아 직장 만족도가 현재는 아주 높다.

나는 지금 낯선 땅 제주에서 예비 평가사로 열심히 일하며 5년 후 감정평가사 시험을 더불어 준비하고 있다. 취업과 더불어 생각지도 못한 삶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함께 졸업한 동기 몇몇은 아직도 대기업과 공사취업 준비로 애쓰고 있고 가끔 취업의 어려움을 토로해 너무 한곳만 바라보지 말고 다른 길도 있음을 조언하고는 한다.

직업이라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을 다니고 있다고 알리는 것이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든든한 직장에 들어가 부모님의 어깨를 펼 수 있게 해 드린다면 자식으로서 충분한 효도이겠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작은 목표를 꿈꾸는 나 자신의 행복도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일이 많아 야근도 해야 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방문해 사진을 찍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매일 육지 사람들이 벼르고 별러 휴가차 방문하는 제주라는 섬에 내 직장이 있고, 퇴근 후 함께 노을을 바라보며 어울릴 수 있는 친구 같은 직장동료가 있고, 내가 맘 편히 쉴 수 있는 집이 있어 기쁘다.
워라벨이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는 없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어 행복하고 낯선 곳에서 정착하는데 취업정보로 도움을 준 워크넷에 가장 감사할 따름이다.

힘들어도 놓지 않았던 끈...
워크넷...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던 나...

본인은 1975. 02.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에서 6.25당시 월남하신 함경남도 함흥군 하조양면 봉서리 출신인 실향민 아버지와 무남독녀인 어머니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실향민 출신의 성실하신 아버지와 일가친척은 없으셨지만 현모양처이셨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1997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교통사고로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저는 학업을 중단하고 공사 막일, 각종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하시며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1998년에 처음으로 서비스를 개시한 워크넷을 국가가 보증하는 공인된 취업알선기구라 생각하여 눈여겨 보고 있던 차에 1999년에 워크넷을 통하여 처음으로 중소기업(○○○○○○주식회사)에 취직하여 낮에는 회사생활을 하고 밤에는 일용직을 하며 살아가 던 중 2008년 05월에 회사 경영난으로 ○○○○○○(주)를 그만두고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한 덕분에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구인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 08월에 바로 워크넷을 통하여 ○○커뮤니케이션 이라는 외식 프렌차이즈 본사에 취직하였고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던 지금의 배우자 박○○을 만나 결혼하고 전세보증금 3500만원의 단칸방에서 어머니와 함께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신혼여행도 가지 못하였지만 2009년에 첫아이가 태어나고 프렌차이즈 본사 경험근무 경력을 바탕으로 2012년에는 서울 마포구 도화동 소재에"○○○"이라는 한식 전문 식당을 어머니와 함께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워크넷을 통하여 구직만 하던 제가 구인을 요청하는 사업체의 업주가 된 것입니다. 만감이 교차하며 식당 운영 계획을 세우고 식당 개업 전부터 미리 워크넷을 통하여 지역의 경험 많은 맞춤 인재를 알선 받아 식당 개업 후 바쁜 와중에도 별 무리 없이 식당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불행...

개업한 식당이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되어 회사 생활을 병행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입이 좋았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2014년에 세월호, 국정농단 등 여러 국내외의 어려운 상황 등이 발생하면서 매상은 급격히 줄어들었고 워크넷을 통하여 구인한 직원을 줄여 어머니와 둘이서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해 나가려고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매상이 줄자 월세와 공과금이 연체되었고 급기야 남은 임차보증금마저 거의 소진되는 상황까지 되어 버렸습니다. 연이어 저희 가정에 큰 일이 생겼습니다.

2017년도 2월에 직원 없이 어머니와 단둘이 식당을 운영하던 중 어머니가 갑자기 뇌출혈로 주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 으로 긴급히 옮겨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동맥 연결 수술을 받으시고 뇌병변 4급의 장애인 판정까지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석계역 소재 ○○○요양병원 으로 옮겨 1년 6개월 이상 재활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후부터 ○○○○병원 수술비 입원비 3600만원 과 매월 재활병원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매달 지출되는 약값이 저에게 큰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당

시 2017년에만 병원비와 약값이 약 40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은 당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업자 신용대출 2500만원, BC가맹점 대출 800만원, ○○저축은행 1500만원, 갖고 있던 ○○카드와 ○○카드, ○○카드,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병원비와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제가 혼자 워크넷을 통해 주방직원을 1명 채용하여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번 돈으로 대출금 및 카드 대금을 변제해갔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 에서 계속 통원 재활 치료를 받아야했고 병원비와 약값은 저에게 커다란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부채는 점점 늘어갔습니다.

위기일 때 더 큰 위기가 찾아온다... 설상가상...

식당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던 중,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갈비 프렌차이즈인 "○○○갈비"가 사업성이 아주 좋고 주류 대출도 알선하여 줄 테니 식당을 갈비전문점 으로 업종변경 하여 운영해 보라고 계속 권유하고 회유하여 주류 대출 1500만원, ○○캐피탈 1700만원 총 3200만원을 대출받아 시설비 및 홍보비, 인건비정산 등으로 투자하여 2017년 10월말에 운영하던 한식당 "○○○"을 갈비 전문점 프렌차이즈 으로 업종 변경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2개월 정도만 잘되어 첫 달에 약 13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제외한 40% 정도를 어머니의 병원비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나고 프렌차이즈 본사가 정한 가격과 메뉴 구성은 이내 손님들의 외면을 받기 시작하여 매출은 40만원 미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본사가 보내주는 육류 및 소스의 가격과 품질이 떨어져 식당 운영이 더더욱 이나 힘들어 졌습니다. 수차례 본사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 하였지만 프렌차이즈 본사가 항상 그러하듯 나 몰라라 하며 무관심으로 일괄하던 중 식당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도 거의 다 소진되고 차임도 계속 밀리니 당장 퇴거하라고 압박하여 몇 개월을 더 운영하다 2018년 4월에 결국 신청인은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권리금 800만원에 가게를 처분하고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설투자비, 물품미지급 대금, 주류대출금, 밀린 월세, 인건비 등 합계 금 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인건비 및 물품대금 일부는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 변제하고 나머지는 고스란히 저의 채무가 되었습니다.

빚만 남은 지금... 모든 걸 정리해야 할 때...

본인의 프렌차이즈 갈비전문점의 실패로 인하여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도 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카드돌려막기도 더 이상 안 되어 연체가 되었고 일용직으로 번 돈 및 어렵게 어렵게 처가댁에 사정하여 병원비와 생활비는 임시방편으로 해결하였으나 살아갈 길이 막막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살고 있던 아파트의 월세 및 관리비가 체납되어 저희 가족은 당장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엄동설한인 12월초에 보증금 5000만원에서 보증금 3400만원에 월세 46만원으로 옮기면서 밀린 월세와 관리비를 충당하였고, 장모님, 처형의 도움으로 부족한 이사비용과 생활비를 해결하였습니다.

힘들어도 놓지 않았던 끈... 워크넷...

여러 역경 속에서도 가족들의 생계와 절망적인 상황 타계를 위하여 틈 날 때 마다 워크넷을 꾸준하게 들여 다 보았고 워크넷과 연계되어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실패한 사람들을 위한 여러 정부 지원사업-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알게 되어 식당 기물 정리부터 세금정산, 임차관계 및 고용관계 종료방법 등 식당 정리 후 시기 단계별로 차근차근 재 취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폐업 전 후 멘붕 상태였던 저에게 여러 재기 교육 및 재기 성공 사례 등을 통하여 경제적, 심리적으로 치유 받을 수 있었고 교육 후 꾸준하게 구직한 결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주)에 취업 성공하여 지금은 워크넷을 통하여 회사에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전략기획실의 실무자가 되었습니다.

워크넷...이라는 끈이 희망으로....

본인은 식당을 운영 시 노인이 오시거나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식당에 오시면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시킨 메뉴 이외에 덤으로 제공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며 제 스스로 무척이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큰 것은 아니지만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에 무척이나 즐거워 했던 본인의 사정이 어려워져 남에게 도움 받는 처지가 되어 보니 그 당시의 베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을 우선 선발 채용하는 등의 베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해 주시는 현 직장의 대표님을 만나게 되어 절망 속에서 나쁜 생각까지 하였던 저에게 희망과 나눔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워크넷 이라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가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싶었던 저에게 희망의 매개체가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워크넷 담당자님 , 본인이 워크넷을 통하여 받은 소상공인 정부지원 정책 및 혜택을 디딤돌 삼아 남은 삶을 더 열심히 살고 또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에 하였듯이 남들에게 베풀고 사회에 은혜를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워크넷 또한 꼭 이용하라고 주변 사람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어린 세 아이들에게 떳떳한 가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고용노동부 워크넷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는다.

2019년 10월 23일 오후 3시 20분 현재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며 워크넷에 접속해 있다.
구직신청취소를 하기 위해서 접속하였다가 이 '취업성공 수기 공모전' 공지를 보게 되어 이렇게 나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오늘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한다면 나는 오늘 아침에 새로운 직장이 될 '○○○요양원'에서 입사면접을 보고 왔다. 건물을 짓고 있을 때부터 오픈을 하면 입사지원을 하리라 마음먹었던 곳이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워크넷에서 구인공고를 보고 '이메일 지원'을 하려하니 워크넷 구직신청

이 된 자만이 이메일지원이 가능하기에 구직신청을 하고 이메일지원을 하였었다. 그래서 월요일에 면접제의 전화를 받고 하나 남은 연차휴가를 내어 수요일인 오늘 면접에서 대환영을 받았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발걸음도 가볍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주오던 낯선 할머니께서 어쩌면 그렇게 걸음걸이가 예쁘냐고 하신다. 여고생 때 들어보고 못 들어 본 칭찬을 50대 후반으로 접어 든 내게 낯선 어르신이 맘에 없는 말씀을 하실 리도 없을 텐데 내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고 있는 듯 했나보다.

집에 돌아와 부산에 사는 언니에게 이 신나는 뉴스를 전하니 말일 자로 퇴사하면 바로 내려오란다.
11월 2일부터 불꽃 축제가 있단다. 이 무슨 축하퍼레이드란 말인가 말이다. 알았다며 신나는 약속을 하고 점심을 먹고 나니 휴대폰이 울린다. 고양고용지원센터 상담사가 구직신청을 보고 채용안내 전화를 해 온 것이다. 퇴사하여 실업급여신청을 위한 것인지, 취업을 위해 구직신청을 한 것인지, 채용정보가 필요한지 등등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물어 오기에 목소리도 경쾌하게 “아닙니다, 이메일지원 하기위해 구직신청 했었는데, 방금 입사면접보고 왔고 11월 14일부터 출근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다시 구직신청을 취소해야 하나보군요“ 했더니 어쩌면 그렇게 빨리 진행하셨냐고 하며 덩달아 기분이 좋으신지 축하한다는 목소리가 진심으로 즐거운 듯 들린다.

내 나이 올해 56세에 이렇게 새 직장 지원에서 환영 받을 나이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 이렇게 반겨주는 데는 2016년 9월 고용지원센터를 찾으면서부터 지금껏 나를 안주시키지 않고 걸어왔기 때문이다. 그 길에는 HRD-net이 길을 터주고 워크넷이 함께 동행 해 주었다.

지난 월요일 얼굴도 모르는 분께서 입사 지원자인 나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을 보자고 하시며 즐거운 농담까지 하셨다. 내가 지원한 요양원 시설장님이라고 하셨다.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간호조무사 일을 하고 싶으세요?” 순간 무슨 말씀인지 의안이 벙벙했다. 근데, 이어 즐거운 목소리로 “사회복지사 자격도 있으시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도 있으시고..., 우리 면접 한번 보도록 합시다,“ 하신다. 간호조무사 모집에 지원했던 나는 그 제서야 알아듣고 함께 웃었었다. 그리고 오늘 기분 좋은 면접을 끝내고 돌아와 누구든 잡고 이 즐거운 얘기를 하고 싶은 차에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는 문구의 수기 공모전을 보게 되었으니 워크넷은 진정 나의 친구, 나의 동반자라 하고 싶다. 이 친구를 만난 건 2016년, 벌써 3년이 지났다.

2016년 어느 여름날, 나는 사무실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남편과 운영 중이던 레이저커팅 사업장이 장기불황으로 영업이 부진하여 주문이 없는 사무실에선 팩시밀리나 전화기 등 모든 사무기기들이 낮잠을 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곳저곳의 사이트에서 이것저것의 정보들을 들여다보던 중, 고용복지 사이트에서 '개인사업자 취업성공패키지'라는 훈련제도를 보게 되었다.

재취업이라는 건 생각도 해보지 못 했고 업종을 바꾸려니 다방면으로 불황인 상태여서 사면초가라는 표현밖에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접하게 된 것이다.

모든 조건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더 샅샅이 관련정보를 뒤졌다. 그리고 구직등록을 하였다. 하고 있던 일이 컴퓨터로 기계운용을 하던 일이었기에 컴퓨터는 생필품이었고 인터넷은 내 친구여서 생활화가 되어 있었기에 굳이 방문을 하고 전화를 걸지 않아도 제도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준비는 된 상태로 '의정부고용지원센터'를 찾아갔다. 사업장은 파주였지만 자택이 의정부였고 지리적으로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상냥한 상담사의 안내에 따르면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으로서 국비로 공부도 하고 훈련수당과 교통비 지원까지 거기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수당까지 주어진다고 한다. 내나라 대한민국이 눈물 나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며 안내에 따라 국비훈련 계획을 잡았다.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과정을 두고 고민하면서 간호조무사 공부는 주간시간을 통틀어 써야 하는데 그때만 하여도 사업장에서 완전히 손 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 훈련 야간반에 접수를 하였다. 사업장 일과 재가요양 일을 겸해 볼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보겠다는 심산으로 낮에 일을 끝내고 야간에 4시간 요양보호사 교육원 수업을 들었다. 근데, 일과 병행하는 야간공부가 힘들기는커녕 너무나도 신선한 경험이고 사회복지와 간호로 구성된 요양보호사 수업과정이 너무 재미있고 간호와 복지 분야에 큰 호감을 갖게 했다.

그래서 이듬해 4월 요양보호사 시험을 치루고 난 뒤 곧장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4월 25일 개강 간호조무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원등록과 4월26일 개강 사회복지사 2급 취득을 위한 인터넷강의 수강신청을 하였던 것이다.

국비지원 훈련비지원 한도금액은 300만원이어서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공제하고도 지원을 더 받을 수도 있었지만, 같은 분야의 훈련비지원을 다시 받으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있었고 그러기엔 내 나이가 50대 중반으로 내달리고 있었기에 나에겐 시간이 돈이었다. 그래서 두 과정을 동시진행으로 사비를 투자하여 시작하였다. 머릿속 온갖 잡념을 쫓을 만큼 나의 1년은 타이트하고 바쁘지만 활기차게 지나갔다.

드디어 2018년 3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으로 4월 자격증을 받아 5월에 취업을 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으며 일과 병행해 온 공부는 지난 2월에 사회복지사2급 취득을 하였고 이어서 현재는 행정학사 학위와 평생교육사2급 과정을 진행 중으로 내년 2020년 2월에 학위와 자격증 발급이 예정에 있다. 그리고 내년 1월엔 사회복지사1급 시험에도 도전해 볼 생각이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는 현재의 생활이 즐겁고 활기차며 그 에너지들이 나의 이력서에서 느껴졌을 것이다. 간호조무사들의 이직률이 높기에 취업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신이 얼마만큼 선택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는 지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나는 나 자신이 당당할 수 있을 때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라는 즐거운 면접요청이 나를 행복하게 했고 내가 원하는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앞으로도 일과 공부를 병행 할 것이다. 그리고 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다.

요양원은 주거생활시설이다. 어르신들과 우리 종사자들은 마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는 공간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 일하는 직장이고 이 일로 마음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처음 이 일을 시작한지 3~4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하루일과를 되새기던 저녁시간에 떠올리던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서 적었던 글귀가 있다. 그냥 문득 내 마음이 어르신 마음이 되어 써 내려 간 글귀여서 이 마음을 읽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가 느껴진다.

“나는 늙고 병들었지만
앞뜰에 나와 사계절을 본다.
꽃이 지고 새가 울며 나비가 춤추는 정원.

고요한 이 정원이 외롭지 않은 것은
내 등 뒤엔 항상 누군가가 서 있고,
그는 항상 나의 어깨를 토닥거린다.

또한 나의 눈앞엔 항상
누군가가 내미는 손길이 있다.
난 그 손길을 따라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왔고,
내일은 예쁜 그림을 그리고 공연도 볼 것이다.
그리고 오늘처럼 하늘이 맑다면 내일도 나는
꽃향기를 맡으러 이 정원에 나올 것이다.

나의 일상엔 늘 자식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
그래서 건강한 시간보다 아픈 시간이 더 많은
나의 하루가 미소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일산 ○○○ 요양원엔 사람들이 있다.
친구 같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있어 나는 좋다.
그들은 나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울 때 함께 울고
내가 웃을 때 함께 웃는다.

그래서 나는 오래도록 함께 하고 싶다.”

부모님은 누군가의 짐이 되기보다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 효도하려고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된다. 효도는 마음이 하는 것이다. 마음은 애쓰지 않아도 사랑하는 이에게로 움직인다. 나는 지금 내 부모에게

도 다 하지 못했던 효도를 어르신들께 하고 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날들이 나는 좋다.

그리고 개인이 아닌 사회가 모시는 이 효의 변화가 좋고 마음을 나누는 지금의 이 복지 종사자 업무가 좋다. 예상치 않았던 이 엉뚱하고도 생소한 길을 가게 된 계기를 심어 준 HRD-Net에 무한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길을 함께 걸어 갈 워크넷이 한없이 고맙고 든든하다.

나이 55세 퇴직 “호상(好喪)”이란다.

퇴직

2017년 9월30일 D조선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당시 조선업계는 업황악화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시행하였다. 회사에서 55세의 나이는 후배들의 앞날을 위해선 기꺼이 희망퇴직을 해야 하기에 과분한 나이였다. 회사 인사팀에서 전화로 완곡한 희망퇴직을 권유 받았을 때 망설임을 갖는 것조차 사치였다. 신속히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친구들이 퇴직 위로차 소주 한잔과 함께 건넨 위로는 나이 55세 퇴직은 “호상(好喪)”이란다. 바로 공감했다.

실업급여

퇴사 후 약2개월간 약30년간 직장생활을 가족여행과 휴식으로 힐링한 후 비로소 앞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일단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로 대체하고자 했다. 퇴직금은 미래를 위해 손대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퇴직급여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아내 몰래 비자금으로 아껴두었던 통장자금을 인출했다.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 자신의 퇴직금을 언제부터 얼마나 써야하는지 계산이 안 된다.

워크넷

워크넷의 존재를 55세에 처음 알았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구직활동(입사지원)을 한 증거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서 알게 됐다. 다른 구직사이트에 구직 활동한 증거를 제출해도 된다. 그런데 워크넷에서 제출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클릭 한번이면 된다. 다른 구직사이트는 캡쳐하여 첨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른다. 이정도면 나같이 나이든 구직자에겐 충분한 경쟁력을 준다.

워크넷에 올라오는 구인공고는 다른 구직사이트의 구인공고를 모두 가져온다. 굳이 여러 사이트에 가서 조회할 필요가 없다. 채용정보 맞춤 설정을 했더니 구직하고자 하는 직종, 지역에 맞추어 매일 메일이 온다. 메일에 포함된 구인공고 범위를 넓이거나 축소할 때는 내가 조건을 조정하면 된다. 쉬웠다 역시 구직자 입장에선 편리한 사이트다.

워크넷 활용

약 2달간 구직 원서를 10여군데 냈는데 연락이 없다. 내가 원하는 사무 직무는 내 경력으론 어렵나 보다. 50대 취업이 어렵다고 익히 들었으니 실망은 없다. 그러나 대책이 필요했다. 인생 제2막의 직업은 과거의 직업과는 달리 찾아야 되는지 궁금했다. 또 진정한 내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온 내가 궁금해졌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취업선호도검사를 발견했다. 소요시간이 한 시간이라 조용한 밤 시간에 적성검사를 했다. 결과는 과거에 했던 일에서 큰 변화가 없다. 다행이다. 그간 적성에 맞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생긴다. 최소한 적성으로는 지금까지 즐겁게 일한 거 맞다.

그런데 구인 회사에서 연락이 없는 건 나이만 문제인가? 이른바 스펙이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재무 업무 경력 30년에 자격증은 2종 운전면허뿐이다. 토익점수도 없다. 워크넷에서 구직훈련을 안내하는 사이트를 눌렀더니 훈련정보 가득이다. 열심히 훈련 과정 검색하다 내가 도전할 만한 과정 두 개를 골랐다. 하나는 폴리텍대학 자동차 내부 수리과정이고, 하나는 경영관리사 취득과정이다. 경영관리사는 과거 경험의 연장선상이었고, 자동차 수리는 나름 취업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훈련 카드를 발급받아야 훈련비 지원이 된단다. 먼저 이에 관련한 동영상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출력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동영상을 수강하자마자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교육훈련신청 면담을 인터넷으로 신청했다. 몇일 후 연락이 와서 면담을 하였고 교육훈련 신청서도 교부 받았다.

취업

어느 교육 훈련을 언제부터 어디에서 받을까 고민하던 중, 워크넷을 통해 구직 지원을 한 중소기업 M사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 일주일에 3일 근무에 관리업무 전반이다. 사흘 근무라니 꿈에 그리던 직장이다, 급여만 적당하다면. 이틀 후 면접을 봤고 급여 200만원에 재취업을 했다. 집(죽전)에서 거의 두 시간 통근거리에 예전 급여의 1/4이지만 불만은 없었다. 실업급여 받은 지 4개월만이다.

취업후의 근무

근무해보니 M사는 작지만 좋은 재무구조를 가졌고, 사업 수익모델도 훌륭하다. 대표는 공대출신으로 영업/기술에 강점이 있다. 대표의 존대와 배려가 훌륭하다. 일단 처음 한 업무가 전 직장에서 경험이 있던 해외 지분투자 관련 은행 업무 처리이다. 복잡한 업무이나, 전 직장 경험 덕분에 마무리됐다. 두 번째는 회사 규정 정리이다. 이 또한 인터넷 정보와 과거 경험으로 마무리했다. 전공분야인 회사 자금관리와 회계업무도 정비했다.

2개월이 지나니 대표가 급여 1.5배 인상하는 조건으로 매일 출근을 요청했다. 나이가 들어도 비난보

다는 칭찬이 좋다. 고마웠다. 이때 느낀 바가 있다. “급여 많이 주면 열심히 일 하겠다” 와 “열심히 일하면 급여 많이 주겠다”의 차이를. 근로자가 나이 들어 취업할 때 고용주에 경쟁력을 보일 기회는 거의 없다. 일 하는 것을 봐야 고용주와 근로자 서로가 원만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 장년취업 시 인턴제도가 사용자/근로자간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감히 중소기업 고용주들께 말씀드리고자 한다. “의외로 건강한 생각과 경험이 있는 장년 퇴직자들이 많이 있다. 좋은 경험을 과장급 임금으로 일정기간(2~5년)만 채용한다면 고용 부담 없이 회사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계획

지금도 M사에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바쁘게 일한다. 근속 1년 반 이다. 집도 회사 가까운 곳으로 이사했다. 중소기업엔 업무 분장은 형식이다. 해야 할 일이면 누구든 먼저 해야 한다. 장년이 스스로 찾아서 일하면 회사에서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문서작업이나 복사도 스스로 하고 업무적인 지원자 역할을 해야지 감독자가 되어선 안 된다. 또한 전략적 사고와 실질 협상도 해야 하는 넓은 스펙트럼이 필요하다.

과거 직장생활 퇴직 전 10여년을 실무적인 기안을 직접 만들지 않은 것이 큰 부담이었다. 시간은 걸리지만 파워포인트, 한글을 사용하여 문서작성을 직접 하면서 익힐 수밖에 없었다. 안 해본 무역실무, 인사, 총무, 법무업무도 인터넷과 지인들 도움을 얻어 배워야 했다. 중소기업 관리 업무는 다양하게 배워야 할 것이 많았다. 과거 직장에서 좀 더 관심가지고 폭넓게 배울 걸 하는 후회가 들었다. 또 다른 도전이다. 그래도 30년 경력 자랑한 자존심이 있으니 제대로 된 결과물을 위해 물어보고, 찾아보고, 고심한다.

현재의 회사가 대폭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끊임없이 상상한다. 현실은 녹녹치 않지만 과거 성장시대의 아련한 추억이 있어 항상 꿈꾸며 실현할 기회를 찾는다. 회사의 단단한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역시 인재이다.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시키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제 역할의 60%이상이다. 더불어 당장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므로 꾸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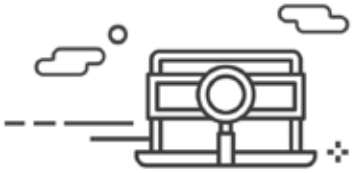
한 수익이 유지되도록 아끼고, 개선하고, 협력하는 것도 게을리 해선 안 된다.

제 취업에서 느낀 점을 요약하면 “장년 취업은 욕심을 버리고, 기여를 한 후에 성과를 바라야 순조롭고, 재취업이 인생의 과외 선물이라 인식하고, 회사 직원들의 발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지속가능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 후, 일정 나이가 되어 조직 기여가 적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그만둔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입니다.

취업은 곧 퇴사를 전제로 하므로, 조직에 급여의 최소 2배 이상 기여하고 있는지 수시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장년의 조직생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했다고나 할까요.

40중반의 나이였습니다. 사회복지 공부를 시작한 것은.

인생의 큰 실패를 겪고 새 출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떠오른 것이 '사회복지'였습니다. 대학시절부터 관심이 있어서 동남아로 1년간 봉사 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었고, 또 저의 잘못으로 사회에 해를 끼쳤으니 어떤 식으로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기도 했던 저에게는 딱 맞는 일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편의점 알바 일을 하며 드디어 2018년 8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획득합니다. 그리

고 2019년 2월에 열리는(그리고 1년마다 시행되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는 고민에 빠집니다.

47세의 나이. 무경력자. 손에 쥔거라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하나. 과연 나는 사회복지 분야에 취업할 수 있을까? 괜히 헛돈 쓰고, 헛수고 하며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 △△△ 등의 취업정보 사이트도 기웃거려 보고, 각종 사회복지 관련 사이트도 돌아다녀 보았지만 이렇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취업의 높은 벽만 실감하며 조금씩 용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각 지역에서 주최하는 취업박람회나 주민 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이력서 쓰기 등의 수업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안 좋은 생각에 빠져 지레 겁먹고 포기해야하나 걱정하던 그 때, 고용복지센터 직원분의 소개로 드디어 워크넷을 접하게 됩니다. 사실 그전에도 워크넷의 존재를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일종의 편견 때문에 그냥 회원 가입만 되어 있는 상태였지요. 어떤 편견이었냐구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별 알맹이도 없는데다가 사이트 디자인이나 메뉴 구성 등이 뒤쳐져서 사용하기에 불편하다는 편견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워크넷은 저의 그런 편견들을 단번에 깨부셨습니다. 광고 배너 등으로 떡칠되지 않은 깔끔한 사이트 디자인부터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담당자의 관리와 확인 하에 게재되는 신뢰성 높은 취업 정보와 각종 민간 취업정보사이트의 정보도 아우르는 폭넓은 채용 정보, 관심 분야 및 관심 기업 등록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는 소식 등등. 제게 꼭 필요한 기능으로 꽉 차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준생을 위한 다양한 메뉴들도 큰 도움이 되었지요.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면접 전략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취업 기술도 엄선되어 제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졌던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켜 주었던 직업 심리 검사도 있었구요. 그것뿐이겠습니까? 본인이 등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맞춤 정보들까지. 그야말로 워크넷에서 취업을 위한 모든 준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를 경험했다고나 할까요.

“그래. 앞으로 취업 준비는 이곳에서 다하자!”

그 뒤로 매일매일 한 시간씩은 워크넷에 접속했습니다. 지역별, 직군별로 검색해서 관심 기업을 알아보고, 사이트의 자료를 참고해서 이력서 작성해서 제출하고, 취업지원이나 고용정책에 관한 정보도 찾아보고 하면서 말입니다. 매일 6시간씩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루 40page씩 사회복지사 1급 시험 공부, 그리고 매일 한 시간씩 워크넷에서의 취업 준비. 그렇게 바쁘면서도 알차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정말로 꾸준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더군요. 저는 그 어렵다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데 성공했답니다. 전체합격률 약 40%의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단번에 합격했고, 올해 2월 7일엔 사회복지사로서 취업에도 성공했거든요.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은 '○○○○○○○○○○○센터'입니다. 주로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을 도와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력서는 30~40군데 정도 제출했고, 세 번째 면접만에 취업에 성공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끈기를 갖고서, 한두번의 실패에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워크넷은 제게 그럴 수 있는 자원을 제공했답니다.

아참. 제가 얘기했던가요? 처음 2월 7일에 입사할 때는 1년 계약직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인 지난 8월 7일에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썼답니다. 맞습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40대 후반의 무경력자가 정규직 직원이 된 거지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워크넷을 만나지 못했어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워크넷을 믿고 신뢰했기에 합격과 취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곳 저 곳 사이트를 두리번거리며, 여기저기 쫓아다녔다면 정신이 분산돼서 제대로 된 결실을 못 맺었을 가능성이 컸겠지요.

정확히 1년 전의 저를 떠올려 봅니다. 취업 준비와 시험 준비로 불안해하던 저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당당한 정규직 직원으로서, 그리고 꿈에 그리던 사회복지사로서 일하고 있는 저를 말입니다. 1년 만에 크게 변한 제 모습 뒤에는 워크넷이 있었습니다. 워크넷에서 정보를 얻고, 워크넷에서 용기를 얻고, 워크넷을 통해 취업을 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을 통해 오랜만에 떠올려 본 워크넷. 참 고맙네요!

워크넷 취업성공수기
장려상

“엄마가 멋지게 입고 나가는거 멋있어 보여”

“우리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라는 남편의 의견에 따라 잘 다니던 법률사무실을 퇴사하고 아이 둘의 엄마로의 삶을 시작했다.

첫째아이가 7살이 되고, 둘째아이가 5살이 되자 이제 “내가 할 거야!”하며 내 손을 거부하는 두 아들을 돌보며 그저 그런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다.

오랜만의 친구들의 모임이라고 멋지게 빼입고 나간 모임자리에서 각자의 안부를 묻고 명함을 돌리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가만히 앉아만 있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져 그 모임자리가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모임이 끝난 이후 우선 나는 다양한 사이트를 돌아보며 일자리를 찾아보았고, 7년을 아이만 키우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곳은 없어보였다. 간단한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젊은 20대 청년을 원했고, 서류접수를 통해 연락조차 없자 자존감은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그러다 워크넷을 알게 되었고, 직업적성검사부터 다양한 구직신청까지 절차대로 신청을 하고 지역별, 직종별 일자리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있어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낸 이후에는 워크넷에 매달려 일자리에 대한 연구까지 이어졌다. 나는 적성검사상 상담쪽에 잘 어울리는 유형이었고, 직종별 일자리 채용을 보던 중 생소한 직업상담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상담하는 것을 좋아했고, 나처럼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작정 아르바이트 등 단순업무가 아닌 워크넷 같은 도움을 주는 사이트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해서 잠시 일자리 찾기를 멈추고 직업상담사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다. 1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내 꿈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고, 수시로 워크넷을 돌아보며 새로운 직업동향도 살펴볼 수 있었다.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같은 전문직종은 대부분 구인이 많았고, 사무직은 많은 사람들은 원했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쉽게 나지는 않았다. 자격증 발급되던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워크넷에 들어가 우대사항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는 공고에 도전한 것이었다.

7년을 경력단절로 아이들만 키우던 한 엄마에서 구직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렇게나 바라던 직업상담사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을까? 나같은 아줌마를 누가 뽑아줘?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어졌고, 자존감은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원서를 내고 며칠 후 면접의 기회가 이어졌고, 나는 멋진 회사에 채용이 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면접 때 일을 향한 나의 열정과 간절함이 느껴졌다 하셨고, 이를 통해 나는 경력단절 여성이 아닌 직장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첫째아이 일곱 살, 둘째아이 다섯 살때 시작했던 일은 지금도 이어져 벌써 4년차워킹맘이 되었다. 아이들이 엄마 손이 가장 필요할 때 옆에서 함께 해주었고, 아이들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시점에 재도전을 통해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지금 주변에도 육아를 위해 경력단절이 된 수많은 엄마들이 있고,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여성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나또한 그러했듯이 불안해하

지 말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워크넷이 새로운 직종과 여러 가지 직업들에 대해 새로운 일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많은 직업상담사들이 구직자와 구인처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걸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현재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 직업상담일이 아닌 환경, 소비자 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아직도 엄마손이 필요한 초등학생 형제에게 가끔 "엄마가 일해서 싫어?"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엄마가 멋지게 입고 나가는거 멋있어 보여"하고 응원해준다. 엄마도 엄마의 일을 하는게 더 좋아 보인다는 아이들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고 말하곤 한다.

7년 경력단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시간을 버티고 지나, 지금은 멋진 워킹맘으로 일할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느끼고, 나처럼 경력단절의 시간을 지나는 사람들, 혹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청년들,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곳임은 분명하다 느낀다. 65세 퇴직하시고 일자리를 찾으시는 친정아버지께서 어려움을 겪으실때에도 워크넷을 핸드폰에 깔아드리며 수시로 보시라고 권해드릴 정도로 믿음이 있는 곳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희망과 격려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요즘 말로 인생 사이트가 되어주고 있었다.

"우리엄마, 예뻐! 정말 정말 멋있어"
"오늘부터 엄마 일하러 가면, 연서랑 더 많이 못 놀아주고, 매일매일 종일반 해야 하는데 괜찮아?"
"응, 난, 일곱 살 언니니까 괜찮아, 우리엄마는 이제 실장님이야!"

정말 오랜만에 화장을 하고, 드라이를 넣고,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가, 아이는 마냥 예뻐 보이고, 예쁜 엄마가 유치원 차를 태워 배웅하는 것에 아이는 적잖이 신이난 모양이다.

하나로 질끈 동여맨 머리, 허리고무줄 늘어난, 무릎 나온 바지, 남편이 입다 작아진 티셔츠, 그렇게 볼품없이 늘, 같은 모습을 하고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맞이하는 엄마가 한참 예쁜 것을 좋아하는 일곱 살 딸아이에게 고와 보일 리 없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늘, 〈엄마〉라고 대답했지만, 아이가 바란 엄마는 〈그냥 엄마〉가 아니라 〈예쁜 엄마〉 였나 보다.

나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직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갑자기 찾아온 디스크 파열로 응급으로 수술을 하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1년여 시간의 휴식기를 가져야만 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온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하고 쉬어야지..했던, 첫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경력이 단절되고, 많아진 나이 탓에 다시 받아주는 직장이 없으면, 당장! 아파트 대출금과 커가는 아이 교육비, 외벌이로는 쉽지 않을 경제적 현실의 벽에 부딪혀 초조함이 일기 시작했다. 불안한 마음은 삶의 모든 순간을 〈짜증과 우울〉이라는 단어와 연결 시켜 주었고, 일상의 시간이 무미건조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렇게 주저앉기에 나는 아직 젊고, 갚아야 할 빚도 많았고, 엄마만 바라보는 예쁜 딸이 있었다. 그렇게 1년 후, 디스크 완치 판정을 받고, 병가로 인한 휴직, 재취업 준비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업급여 신청과 동시에, 다시 구직활동을 해보기로 했다. 주위에서 말로만 듣던,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일부터, 내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고용 센타에 방문해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고, 일러주는 대로 구직활동을 하면 된다고 했다. 이력서를 들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서먹서먹한 첫 대면을 거치고, 기다리고, 서류에 확인을 받고 하는 일이 가장 어려운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구직등록은 워크넷을 통해 쉽게 할 수 있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을 잘 입을 수 있다고 했던가!
취업의 첫 단추 격인 이력서를 쓰는 일조차도 너무 오랜만이라 내게는 어색했고, 직장마다 요구하는 자기소개서 역시 써본지 너무 오래라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인터넷 검색의 도움을 받으려했지만, 장황한 설명과 개개인마다 내용들이 달라 어디에 맞춰야할지 갈팡질팡할 때, 우연히 워크넷 사이트에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발견하고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기뻤다. 워크

넷은 초보자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임팩트있게 정리를 해주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무사히 쓸 수 있었다.

아이 때문에 먼 곳에 직장을 잡는 것보다 출퇴근이 용이한 가까운 곳에 어떠한 일터가 있는지, 내가 원하는 일터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카테고리를 잘 분류해두어 내게 꼭 맞는 직장을 찾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워크넷은 고용노동부와 연계가 되어있어서, 일단 직장에 대한 기본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릴 수 있어서 무엇보다 안심이 되었다. 회원 가입을 하고, 이력서를 저장해두면, 모집공고를 보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모바일로도 쉽게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외부에 나가 다른 볼일을 보다가도 내가 원하는 곳에 모집공고가 뜨면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서를 낼 수 있었다.

이력서를 내고 오지 않는 연락을 기다릴 때면 초조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는 워크넷의 직업인 인터뷰를 읽거나 직업군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내가 몰랐던 새로운 직업에 대해 호기심이나 배움에 대한 열정을 키워보기도 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 워크넷은 단순히 구인, 구직을 위한 형식적인 정보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설레임과 두려움을 안고, 첫시작!을, 혹은, 인생 제 2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취업에 필요한 매 순간순간, 가장 기본적인 정보부터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로, 요즘 말로인생 사이트가 되어주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워크넷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서류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합격통보를 받았으며, 1년의 휴직을 끝내고, 다시 워킹맘으로, 제법 규모가 있는, 따뜻하고 인정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는 치과의 상담실장 자리로 돌아가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는 그런 엄마를 자랑스러워하며, 유치원 차에 오를 때 마다, “우리엄마는 실장님이야”라고 한자 한자 힘을 주어 말했고, 아이의 그 뿌듯해하는 목소리를 응원삼아 나는 워킹 맘으로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한다.

세상에서 가장 가기 싫은 병원이 치과라는 편견을 가진, 아픔에 대한 공포와 많은 정보들 속에 혼란과 혼돈을 가지고, 반신반의한 물음표와 경계를 안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워크넷이 내게 도움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가진 다양한 정보들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알려주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장이 되겠다고 다짐해본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거나, 예쁜 실장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실장이다”

한국고용정보원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WORKNET
워크넷 고객센터 **1577-7114** 이메일 workmaster@keis.or.kr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휴무)